

01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이사, 지배인 등),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공장장, 현장관리자 등)

“성희롱” 정의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 언동 및 요구’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인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됨

성적 언동 및 요구

-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사표현 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언동으로 여겨진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나.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사건 당사자가 법률상의 행위자 및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지, 성적 요구의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업무 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행위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계에서의 언동까지 제한하고 규제함

** 장소가 직장 내 공간이 아니어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의 장소에서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립

다.

성희롱의 유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¹에 의하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육체적 성희롱

정의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그동안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허리에 손 두르기손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는 행위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정의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그동안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항상 그렇게 입고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여자가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OO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¹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각적 성희롱

정의	<p>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그동안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음란한 시선으로 뺨히 쳐다보는 것

기타 성희롱

정의	<p>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p>
그동안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상 불이익

정의	<p>채용탈락, 승진탈락, 휴직, 정직, 강등,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p>
----	---

라.

성희롱 판단 기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성적 언동 등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그렇게 느낄 만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관점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대법 2017두74702)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7두74702)

Q&A

Q 주변 사람은 경미하다고 느꼈던 성적 언동이 피해자는 매우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하면 다 성희롱인가요? 이럴 때,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뒀 성희롱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판단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적개념에 근거하여 좁게 해석하게 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노동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A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Q 일상적인 외모에 관한 이야기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단순히 외모와 관련한 발언 자체가 성희롱라고 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기분 나빴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성적인 비유, 평가, 함의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외모에 대한 발언을 한 사람은 상대를 칭찬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조심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02

성폭력 개념과 유형

1) 성폭력 개념 및 유형

가.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소송 또는 비사법적 제도를 통해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나.

성폭력의 유형

◇ 강간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것

※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지 않아도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누르거나,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 등도 해당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사람에게 가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자체 및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또는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²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²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되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되는 성립 가능

2) 디지털 성폭력 정의 및 유형

가.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합니다. 유형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자·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 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나.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별 유형

적용법률	유형/성격	예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제작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유사성교·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 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제3항, 제5항</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1호</p>	<p>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촬영물 유포/재유포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p>※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되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성관계, 자위, 누드 등)을 동의 없이 유포 ·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 유포시 음란물 유포로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p>	<p>합성·편집</p> <p>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p>	<p>사진 동영상상을 합성한 성착취물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p>
<p>「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제324조</p>	<p>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
<p>「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2항·제3항·제5항</p>	<p>유통·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유통, 유포 방조 및 협력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유통 및 유포 방조 처벌 ·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p>「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311조</p>	<p>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p> <p>인터넷, 사이버 공간 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